

# 17세기 개인출판의 四書諺解에 관한 고찰

- 1637년 간행의 四書諺解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nnotation of Four Books (四書諺解) Published  
by Private in the 17th Century

옥 영 정 (Ok, Young-Jung)\*

## ◁ 목 차 ▷

- |                      |                |
|----------------------|----------------|
| 1. 緒言                | 3.2 간행지역과 그 시기 |
| 2. 17세기 四書諺解의 간행     | 3.3 내용의 구성과 특징 |
| 3. 1637년 간행 四書諺解의 분석 | 4. 結言          |
| 3.1 형태적 특징           | <參考文獻>         |

## < 초 록 >

이 연구는 1637년의 刊記가 있고 동일한 출판형식을 보이는 『論語諺解』 『孟子諺解』 『中庸諺解』, 『大學諺解』 등의 四書諺解에 대하여 살펴본 것이다.

기존에 알려진 사서언해의 판식, 내용과는 달리 독특한 양식과 편찬의도를 보이는 이 책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인조반정 등 정치, 사회적으로 큰 변화의 시기인 17세기중엽에 간행되었으며 경제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판본으로서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官撰本이 아닌 개인출판물의 성격을 가지므로 기존에 알려진 坊刻本과 書肆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17세기 사서언해의 간행에 있어서 1637년 간행의 사서언해가 가지는 출판문화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현존본, 간행지역, 내용과 체제 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요어: 論語諺解, 孟子諺解, 中庸諺解, 大學諺解, 四書諺解, 個人出版, 窮儒寒士本, 坊刻本, 書肆, 出版文化史

\* 嶺南大學校 中央圖書館 古書室(gabinja@yumail.ac.kr)

접수일: 2004년 5월 31일 최초심사일: 2004년 6월 4일 심사완료일: 2004년 6월 18일

<ABSTRACT>

This paper is a study of the Annotation of Four Books (四書諺解) with colophons and same patterns of publication published in 1637.

They were published in the middle of 17th century when socially and politically big changes lik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壬辰倭亂), Manchu war of 1636(丙子胡亂) and Incho restoration(仁祖反正) happened with consideration for economics due to reflection of the phases of the times. They showed unique forms and intentions of printing different from existing another editions for sell to be known. Especially they had characteristic of private publication so new approach on bookstores can be had.

So tried to analyze existing prints, printing areas, contents and forms of the Annotation of Four Books (四書諺解) published in 1637 and investigate publishing and cultural meaning of them in the publication of the Annotation of Four Books (四書諺解) in the 17th century.

Keywords: Annotation of Four Books, Private Publication, Bookstores, Publication in the 17th Century



## 1. 緒 言

이 연구는 1637년의 刊記가 있고 동일한 출판형식을 보이는 『論語諺解』, 『孟子諺解』, 『中庸諺解』, 『大學諺解』 등의 四書諺解에 대하여 그 現存本, 간행지역, 특징적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四書는 조선시대 유교의 기본경전으로 성리학의 도입 후 가장 널리 읽혀진 책이었다. 四書의 諺解는 이러한 사서에 구결을 달고 한글로 풀어 쓴 것이며, 1590년 반사된 교정청 간행 經書字本을 필두로 여러 차례 간행이 이루어졌다. 특히 17세기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민심을 수습하고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간행되었으며, 기존의 사서언해 판식과 내용에 별다른 변화 없이 중앙관아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사서언해는 기존에 알려진 사서언해의 판식, 내용과는 달리 독특한 양식과 편찬의도를 보이고 있다. 사서언해 중 『孟子諺解』 권말에 나타나는 간행기록에 의거하여 “窮儒寒士本” 또는 “寒士本”으로도 알려져 있는 이 책은 처음에 『孟子諺解』만을 대상으로 처음 발굴하여 조사되었고 당시에 『論語諺解』의 일부도 알려져 있어서 四書의 언해가 모두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는데 마침 동일한 양식의 『大學諺解』, 『中庸諺解』가 잇달아 확인되고, 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일부만 알려졌던 『論語諺解』의 나머지 부분도 찾게됨에 따라 사서언해 1질이 동일한 주체에 의해 모두 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17세기 사서언해의 간행에 있어서 1637년 간행의 사서언해가 가지는 출판문화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現存本, 간행지역, 내용과 체제 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이 판본은 관판이 아니라 개인에 의하여 간행된 것으로 地方刊本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 판매용으로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坊刻本이나 書肆 관련 연구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이 책과 관련하여 밝혀진 기존의 연구로는 국어학계에서 먼저 이 책에 대하

여 주목하여 『孟子諺解』에 대한 국어학적 분석이 일부 이루어졌으며,<sup>1)</sup> 『孟子諺解』의 口訣에 대하여 언급한 연구도 있다.<sup>2)</sup>

또한 四書의 성립과 그 전래, 간행과 유포, 언해 등에 대한 사실을 밝힌 연구가 많이 알려져 있고, 특히 근래에는 『論語』와 『大學』의 판본에 대한 서지적 연구<sup>3)</sup>도 진행되었지만 이 판본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 2. 17세기 四書諺解의 간행

17세기는 16세기 성리학적 사회윤리가 보급되고 16세기 중반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주자성리학이 활성화된 시기이다.

성리학의 經書 중에 조선시대 가장 널리 읽힌 것은 四書五經이었으며, 사서오경 중에서도 16세기 후반부터 朱子가 註를 붙인 四書三經이 중시되었고 그 중에서도 四書는 더욱 중요시되었다.<sup>4)</sup>

四書의 諺解는 이러한 사서에 구결을 달고 한글로 풀어쓴 것이며 1590년 반사된<sup>5)</sup> 교정청 간행 經書字本을 필두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민심을 수습하고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7세기에도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

17세기 사서언해의 간행은 간행에 관련한 기록과 현전본 및 현전하는 내사본을 통하여 그 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간행의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현재까지 알

1) 백두현, 「窮儒寒士本 孟子諺解에 대하여」, 『용연어문논집』 제6집(1993, 8) p.159-174.

정승혜, 「가난한 선비들의 四書諺解」, 『문헌과해석』 25 (2003, 겨울) p.199-212.

2) 南權熙, 「朝鮮中期부터 舊韓末까지의 口訣資料에 대한 書誌學的 研究」, 『書誌學研究』 제18집 (1999.12) p.464-466.

3) 安賢珠, 『朝鮮時代に 刊行된 論語의 板本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全南大大學院, 2002.)

鄭王根, 『朝鮮時代に 刊行된 『大學』의 板本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全南大大學院, 2003.)

4) 金恒洙, 「16世紀 經書諺解의 思想史的 考察」, 『奎章閣』 10 (1987) p.17-40.

5) 도산서원에 반사된 교정청본 사서언해의 내사기록(萬曆十八年七月日 內賜禮安陶山書院大學(中庸, 論語)諺解一件 左副承旨臣李[手決])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서언해 중 『孟子諺解』는 내사기록이 떨어져 나가고 없지만 동일한 형태적 특징을 보이고 있으므로 사서언해가 함께 같은 날짜에 반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려진 17세기의 사서언해 중에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는 선조 41년(1608년)에 濟州牧에서 간행된 『中庸諺解』가 있고, 이후로 광해군 3년인 1611년과 그 이듬해(1612)에 頒賜된<sup>6)</sup> 훈련도감자본 사서언해가 있으며, 그 다음으로 仁祖 9년(1631)에 반사된 훈련도감자복각본 사서언해<sup>7)</sup>가 있다.

1608년 간행의 『中庸諺解』는 권말에 ‘行牧判官 李 等 開刊/ 萬曆三十六年 戊申 十二月日 濟州’라는 간기가 있고 傍點을 그대로 번각한 부분도 일부 보인다.<sup>8)</sup>

1631년 간본은 당시 청주목에서 간행된 것으로 四書諺解 國用 70件的 粧綴이 本館에 당도하였다는 弘文館의 啓<sup>9)</sup>와 이의 반사를 지시한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

숙종 10년인 1684년에도 사서의 언해가 간행되었는데, 실록에는 그 해에 四書三經과 諺解, 『心經』, 『近思錄』과 함께 간행하였다는 기록<sup>10)</sup>이 보이고 이 해의 내사기<sup>11)</sup>가 있는 『중용언해』와 『대학언해』가 규장각과 전남대 각각 전해진다. 또한 四書諺解 등의 간행에 소요되는 종이(楮注紙, 厚白紙 등)를 三南에 分定하여 마련하기를 청하는 宣惠廳의 啓<sup>12)</sup>를 통하여 성균관에서 간행이 이루어진 사실과 이 때 간행된 사서언해 인출을 위하여 필요로 한 종이의 종류, 수량을 확인할 수 있다.

6)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 중에 1611년 校書館에 頒賜한 『大學諺解』(萬曆三十九年七月日 內賜大學諺解一件校書館上)가 있으며, 이듬해인 1612년9월에 校書館, 太白山史庫, 五臺山史庫에 반사한 『中庸諺解』와 妙香山史庫, 太白山史庫, 五臺山史庫, 江華史庫에 반사한 『論語諺解』가 있다. 같은 판본의 『孟子諺解』는 1612년 12월에 校書館, 太白山史庫, 五臺山史庫 등에 반사되었다.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藏書閣 소장본 중에 1631년 赤裳山 史庫에 頒賜한 『大學諺解』, 『中庸諺解』, 『孟子諺解』가 있으며 “崇禎四年閏十一月日 內賜大學(中庸, 孟子)諺解一件 赤裳山上”의 내사기를 확인할 수 있다. 규장각본도 모두 같은 날 頒賜한 책들로 사서언해 전부를 확인할 수 있고, 侍講院, 春秋館, 五臺山史庫, 太白山史庫, 妙香山史庫, 江華府 등에 내려졌다.

8) 南權熙, 『濟州道 刊行의 書籍과 記錄類』 『古印刷文化』 제8집(2001) p.219-252

9) 『承政院日記』仁祖9年11月25日 甲午 ... 鄭之羽 以弘文館言啓曰 公清道濟州牧所印四書諺解國用七十件粧 到本館 何以爲之 敢啓 百官頒賜...

10) 『肅宗實錄』卷十五上, 十年 甲子 五月十二日 丁丑. ...成均館啓刊 四書三經大全諺解 及 心經 近思錄...

11) 규장각본은 康熙二十三年十月十六日 金萬基(1633-1687)에게 내린 것이며, 전남대본은 같은 날 金錫翼(?-1686)에게 내린 것이다.(康熙二十三年十月十六日 內賜同知敦寧府事金錫翼 大學諺解一件 命除謝恩 右承旨臣李[手決])

12) 『承政院日記』肅宗10年6月9日 癸卯. ...宣惠廳啓曰 司憲府啓辭內云云事 命下矣 成均館所刊四書諺解 周易諺解 今已畢刻 進上十件 以楮注紙 國用三十件 以厚白紙磨鍊 則楮注紙三百十二卷 厚白紙九百三十六卷 以此數爲先分定三南 而其餘書冊 則姑待畢刻 更爲磨鍊 分定 何如 答曰 允.

1695년에 이르러서는 금속활자인 무신자로 간행된 사서언해가 등장한다. 모두 간행년대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성암고서박물관 소장의 무신자본 『중용언해』의 내사기<sup>13)</sup>로 추정해볼 수 있다.

또한 비록 四書전체를 간행한 것은 아니지만 元宗字本 『孟子諺解』도 있다. 원종자는 인조의 아버지 元宗이 쓴 글씨를 바탕으로 만든 금속활자로 1693년의 내사기록<sup>14)</sup>으로 그 간행년대를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전하는 간본을 놓고 보았을 때 17세기에 간행된 사서언해는 모두 중앙이나 지방관아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며 민간에서 간행이 이루어진 예는 아직까지 없다.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1637년 간행의 사서언해는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즉 민간이 사사로이 간행하였다는 것이고 그 판형이나 체제가 내용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는 경서 간행의 일반적 관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經書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독특하다는 것이다.

이는 18세기로 넘어가는 시점인 1695년의 무신자본에 이르러서야 판형과 行字數가 바뀔 정도로<sup>15)</sup> 형식의 변화가 거의 없는 시기임을 감안한다면 대단히 큰 변화라 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 3. 1637년 간행 사서언해의 분석

분석에 앞서 현전하고 있는 1637년 간행 사서언해의 간본을 조사해보면 <표 1>

- 
- 13) 1695년 당시 사헌부대사헌이었던 尹摺(1631-1698)에게 반사된 책으로 “康熙三十四年三月十七日 內賜司憲府大司憲 尹摺 中庸諺解一件 命除謝恩 右承旨臣李[手決]”의 내사기가 있다.
- 14) 규장각과 성암고서박물관 소장의 『孟子諺解』중에는 원종자본의 내사본이 있다. 성암본은 1693년 沈粹(1624-1693)에게 반사한 것이며, 내사기록은 “康熙三十二年九月十四日 內賜判中樞府事 沈粹 御筆孟子諺解一件命除謝恩 左承旨臣權[手決]”이다. 규장각 소장본은 같은 해 李重蔓에게 반사한 것이다.
- 15) 이전에는 經書字本の 영향으로 모두 10行19字이며 戊申字本 이후부터 10行17字로 行字數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과 같다. 기존에 알려진 바로는 개인과, 서울대 규장각, 영남대 도서관 등의 기관에서 소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사결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경북대 도서관, 계명대 도서관 등에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1〉 1637년 간행 사서언해의 현전본

| 서명   | 책수        | 판본  | 소장처 | 청구기호                    |
|------|-----------|-----|-----|-------------------------|
| 論語諺解 | 1冊(卷1)    | 木板本 | 경북대 | 중앙古北 181.2183 논63ㄴㅇ(25) |
|      | 1冊(卷1)    | 木板本 | 경북대 | 중앙古北 181.2183 논63ㄴㅇ(26) |
|      | 1冊(卷2)    | 木板本 | 규장각 | 一蓑古 181.1-N731e         |
|      | 1冊(卷2)    | 木板本 | 규장각 | 一蓑古 181.1-N731h         |
|      | 2冊(卷1, 2) | 木板本 | 영남대 | 古148.3논어언ㄱ              |
|      | 1冊(卷1)    | 木板本 | 장서각 | A9D 7I                  |
|      | 1冊        | 木板本 | 개인  |                         |
| 孟子諺解 | 1冊(上)     | 木板本 | 경북대 | 중앙古北 181.2184 맹71ㄱㅇ(26) |
|      | 1冊(下)     | 木板本 | 경북대 | 중앙古北 181.2184 맹71ㄱㅇ(27) |
|      | 1冊(上)     | 木板本 | 규장각 | 一蓑古 181.1-M268ea        |
|      | 1冊(下)     | 木板本 | 영남대 | 古148.4맹자언ㄱ              |
|      | 1冊(上)     | 木板本 | 장서각 | A9E 1B                  |
|      | 1冊(下)     | 木板本 | 계명대 | 180.84맹자언하-2            |
|      | 1冊(下)     | 木板本 | 개인  |                         |
| 大學諺解 | 1冊(合本)    | 木板本 | 영남대 | 古148.2중용언ㄱ              |
| 中庸諺解 |           |     | 경북대 | 기탁문고                    |

### 3.1 형태적 특징

이 책은 『논어언해』 2책, 『맹자언해』 2책, 『중용언해』와 『대학언해』 1책 합쳐서 모두 5책인 것으로 밝혀졌다. 모두 목판본으로 五針眼釘의 線裝本이다. 표지서명이 기록된 것도 있고 닳아서 보이지 않는 것도 있으며 본문의 첫 장이나 마지막장이 落張된 것도 있지만 다른 기관에 소장된 동일본으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판심제가 각 서명별로 달리 나타나며, 책의 크기는 가로 28cm~30cm, 세로

20cm~23cm로 책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半郭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모두 18cm~19cm로 정해진다.

四周單邊에 有界이며 한면이 13行으로 이는 다른 언해본과 형태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큰 특징이다. 자수는 각 행에 24자 내외로 일정하지 않다.

版心の 上下에 모두 大黑口가 있고, 上下內向의 二葉花紋魚尾가 대부분이지만 三葉이나, 반달모양의 어미가 일부 섞인 것도 있다. 紙質은 얇은 楮紙이며 발끈폭은 1.5~2.1cm이다.

전체적인 판형의 크기나 판식의 특징이 17세기 중엽에 간행된 목판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양식으로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sup>16)</sup>.

각 서책별로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맹자언해』는 판심제가 ‘孟吐’이고, 권1-8까지 1책, 권9-14까지 1책으로 2책이다. 『맹자언해』의 제 2책에만 간행과 관련된 기록이 있으며 권14의 권말에 “時用孟子諺解清濁具備盡美矣窮儒寒士病其價重故略書如左崇禎十年丁丑月日刊”이라 하여 간행의 동기와 시기를 알려주고 있다.

『논어언해』는 판심제가 ‘論吐’이고, 1-10까지 1책, 11-20까지 1책으로 모두 2책이고 각 책은 권 1과 권2로 표시되었다.

『중용언해』와 『대학언해』는 1책으로 합본되어 있다. 표지서명은 ‘庸學解’이고 판심제는 각각 “中吐”와 “大吐”이다. 『중용언해』 16장, 『대학언해』 10장이 순서대로 묶여 있다.

### 3.2 간행지역과 그 시기

이 책의 간행시기는 『孟子諺解』 하권 권말의 간행기록과 서책의 형태와 내용으로 확정지을 수 있다. 즉 “崇禎十年(1637)丁丑月日刊”의 간기가 있으며(그림 4 참조) 당시의 판식, 언해에 쓰인 한글의 사용시기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시기에 판각

16) 이는 17세기 임진, 병자 양란 이후 물자의 부족으로 판형, 판식이 작고 글자의 크기도 작아지는 서책간행의 양식적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1655년 간행의 『農家集成』, 仁祖代에 간행된 『新編彙語』, 1646년 간행의 『類苑叢寶』 등의 서책에서 이를 확인해볼 수 있다.

되어 인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孟子諺解』하권 권말의 간행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時用孟子諺解清濁具備盡美矣 窮儒寒士 病其價重 故略書如左 崇禎十年丁丑月日刊

(요즘 사용되는 孟子諺解는 清濁이 갖추어지고 다함이 아름답다. 窮僻한 儒生과 가난

한 선비가 그 가격이 비싼 것을 병으로 여기는 까닭에 책을 간략하게 하여 위와 같이 하였다.)

위의 내용대로라면 이 책은 방각본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는 말이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확정짓기는 어렵다. 만약 방각본으로 가정해본다면 16세기 『攷事撮要』를 기점으로 방각본의 태동기로 볼 때, 18세기 태인 방각본으로 가는 중간단계로 17세기 사서언해의 간행은 큰 의의를 지닌다. 또한 값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책을 사고 파는 書肆가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간행지역은 간행기록으로 알 수 없으나 판심의 흑구부분에 새겨진 刻手표시로 그 지역을 추정해볼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黑口에 새겨진 刻手名 一覽

| 서명   | 새김내용 | 위치                            | 구분   |
|------|------|-------------------------------|------|
| 論語諺解 | 玄淨   | 論語諺解 卷1 第15 제22장, 23장 黑口      | 刻手表示 |
|      | 玄    | 論語諺解 卷1 第15 제24장 黑口           | 刻手表示 |
| 孟子諺解 | 忍    | 孟子諺解 下 제8장 黑口                 | 刻手表示 |
|      | 득    | 孟子諺解 下 제19장, 20장 黑口           | 刻手表示 |
|      | 스극   | 孟子諺解 下 제 장 黑口                 | 刻手表示 |
|      | 계    | 孟子諺解 下 제41장, 63장, 64장, 65장 黑口 | 刻手表示 |
|      | 行    | 孟子諺解 下 제56장 黑口                | 刻手表示 |
|      | 宗    | 孟子諺解 下 제53장 黑口                | 刻手表示 |

판심의 흑구에 새겨진 글씨는 『논어언해』, 『맹자언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

부분이<sup>17)</sup> 각수명이다. 1글자만 있는 각수일 경우 제대로 인명확인이 어렵지만 2글자 이상의 인명일 경우에는 그 일치여부에 따라 확인이 가능하다.

『論語諺解』卷1의 제22장, 23장 黑口에 연속적으로 새겨진 “玄淨”이 당시 활동하던 각수임을 알 수 있으며 이 책의 간행지역과 관련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즉 현재까지 조사되고 알려진 각수명을 확인한 결과<sup>18)</sup> 동시대 간본으로 1635년 泰仁 龍藏寺 간행의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에 동일한 각수명으로 확인된다. 아직까지 동시대에 다른 지역의 간본 중에 같은 이름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1차적인 간행지는 전라도 태인이거나 그 주변지역일 가능성이 높다<sup>19)</sup>. 또한 판각에 참여한 각수가 대부분 승려였을 가능성이 크다.

### 3.3 내용의 구성과 특징

이 사서언해는 내용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는 경서간행의 일반적 관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경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내용의 구성은 교정청 간행의 경서자본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동일한 본문을 한 문과 언해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경서자본에는 한문과 언해문에 쓰인 한자마다 그 독음이 달려있지만 이 책에는 한자음이 없다.

앞서 살펴본 『孟子諺解』卷末 刊記의 기록에서 이 책의 내용구성과 관련한 편찬자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즉 당시에 통용되던 『孟子諺解』의 책값이 너무 비싸서 窮僻한 儒生과 가난한 선비가 사 보기 어려우므로 내용을 줄여 刊行한다는 것이다. 책값을 낮추기 위하여 한문으로 된 대문의 내용을 줄이고 빈 여백이 거의 없이 내용을 채우고 간행한 것이 이 책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면을 고려한 것으로 각 책의 본문에는 편찬자의 이러

17) 일부분의 흑구에 張數表示나, 花紋을 새기고 있는 것이 있다.

18) 金相湜, 『朝鮮朝 寺刹板 刻手에 관한 研究』(博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大學院, 1990.)

19) 음운학적 분석을 시도한 백두현 교수는 ㄷ구개음화, 원순모음화현상 현상 등으로 지방간본임을 피력하였다. 백두현, 「窮儒寒士本 孟子諺解에 대하여」, 『용언어문논집』제6집(1993, 8) p.159-174.

한 노력들이 곳곳에 나타난다.

언해부분은 모두 싣고 있고 한문본은 축약하였으며 그 축약의 방식이 내용을 요약한 것이 아니라 각 문장의 주어와 각 구절의 끝 글자만 취하고 이어지는 구절을 함께 달고 있다. 이러한 축약의 방식은 다른 경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줄여져 있어서 漢文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각 구절의 끝 글자를 취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고, 이어지는 구절을 반드시 달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경제적인 측면 외에도 문장을 거의 외우다시피 한 학자가 끝 글자와 구절로 문장을 이어가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sup>20)</sup>

문장을 축약한 것 외에도 경제성을 고려한 것으로는 한문이 끝나고 언해문으로 바뀔 때 行을 바꾸지 않고 이어서 사용한 점, 일부분이지만 언해부분을 1行에 2줄씩 넣어서 판각하거나, 권차가 바뀌어도 새로운 張의 첫 行부터 시작하지 않고 그 다음 行에 이어서 시작하거나, 심지어 권차의 표시도 생략하는 것 등이다.

각 서책 종류별로 그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3.1 『論語諺解』

『논어언해』는 전체 2권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에는 學而, 爲政, 八佾, 里仁, 公治長, 雍也, 述而, 泰伯, 子罕, 鄉黨 등 10편 제2권에는 先進, 顏淵, 子路, 憲問篇, 衛靈公, 季氏, 陽貨, 微子, 子張, 堯曰 등 10편 모두 20편이 실려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4권4책본의 순서와 같으며 각 편마다 판심제인 “論語”아래에 해당하는 편의 번호 순서를 적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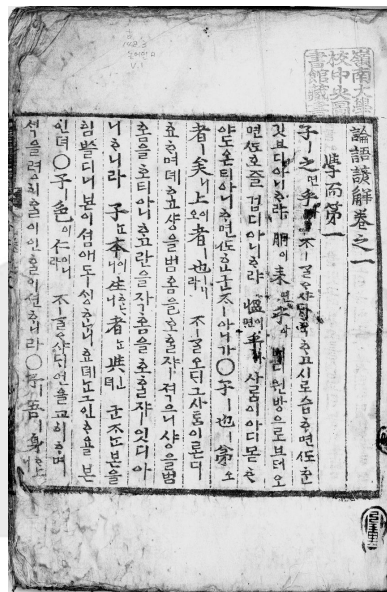
제1책인 1권은 35장, 제2책인 2권은 42장의 분량으로 4권4책본의 내용이 모두 들

20) 이러한 방식의 축약을 하계된 배경으로 窮儒寒士를 위하여 비용 절감 효과를 얻기 위한 것 이외에 또다른 이유로 背誦이나 背講을 위한 대비일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정승해, “가난한 선비들의 四書諺解”, 문헌과해석 25 (2003, 겨울) p.199-212.) 즉 당시의 과거시험의 종류 중에 本文을 보지 않고 물음에 답하는 背講, 本文을 보지 않고 외우는 背誦 (이성무, 『한국 과거제도사』 서울: 민음사, 1997. 참조) 등에 대비하기 위한 축약일 수도 있으며 만일 그러하다면 이 책은 과거시험대비용 수험서일 가능성이 높다.

어있다. 교정청 간행의 경서자본과 비교하여보았을 때, 동일한 본문을 한문과 언해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경서자본에는 한문과 언해문에 쓰인 한자마다 그 독음이 달려있지만 이 책에는 한자음이 없다.

앞서 언급한대로 언해부분은 모두 신평고 있고 한문부는 각 구절의 끝 글자만 취하였으며 그 축약의 방식이 내용을 요약한 것이 아니라 각 문장의 주어와 각 구절의 끝 글자만 취하고 이어지는 구절을 함께 달고 있다.

한자부에 모두 한글의 토를 사용하였으며 한자의 약체구절이나 한문구절은 보이지 않는다. 경북대 규장각 영남대 장서각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개인 소장본도 일부 알려져 있다.(표 1 참조) <그림 1>과 <그림 2>는 각각 『논어언해』 권1과 권2의 첫장이다.



〈그림 1〉『논어언해』 권1의 첫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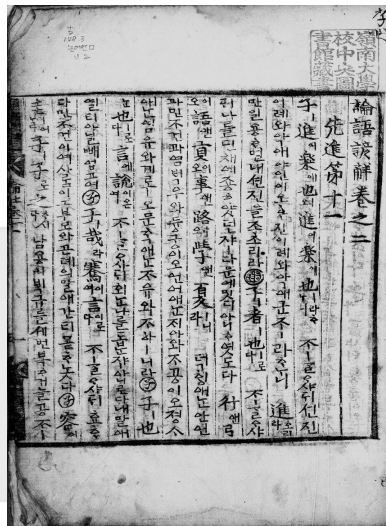
경서자본과의 비교를 위하여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경서자본

漢文 子·즈 曰·왈學·혹而시時시習·습·습·지·면·不·불·亦·역·說·說·乎·호·아  
 有·유·朋·朋·이·自·즈·遠·원·方·방·來·來·면·不·불·亦·역·樂·樂·乎·아  
 人·인·不·不·知·知·而·而·不·不·知·知·溫·溫·은·이·면·不·不·知·知·亦·역·君·君·子·즈·乎·호·아  
 諺解文 子·즈 | 굴·으·사·디 學·혹·혹·고 時·시·로 習·습·하·면 不·호·는·것·브·디·아·니·호·라  
 ·버·디·遠·원·方·방··으·로·브·터·오·면·不·호·는·것·브·디·아·니·호·라  
 :사·롭·이·아·디·물·호·야·도·溫·온·티·아·니·호·면·不·호·는·것·브·디·아·니·가

## 1637 년본

漢文 子 | 之·면·乎·아 朋·이·來·來·면·乎·아 溫·이·면·乎·아  
 諺解文 子 | 굴·으·사·디 學·혹·혹·고 時·시·로 習·습·하·면 不·호·는·것·브·디·아·니·호·라  
 버·디·遠·원·方·방··으·로·브·터·오·면·不·호·는·것·브·디·아·니·호·라  
 사·롭·이·아·디 物·호·야·도 溫·온·티·아·니·호·면 不·호·는·것·브·디·아·니·가



〈그림 2〉『논어언해』 권2의 첫 장

## 3.3.2 『孟子諺解』

『맹자언해』는 전체 2권 2책으로 구성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14권 7책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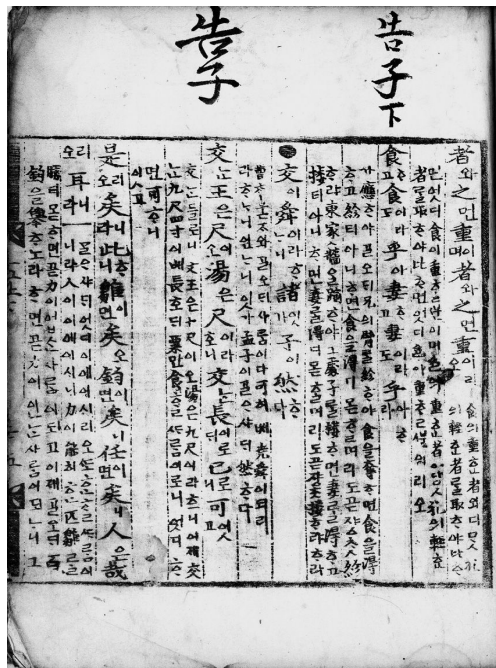


④ 진실로 이 말이 편편 이는 周에 유민이 업슴이니라(卷下 6a)

萬章 堯 天下로써 舜을與히시다 하니 인는 니잇가

孟子 堯 사디 아니라 天子 能히 天下로써 人을與여디 못호느니라 (6b)

賤으로써 貴를 害디 마로즈 띠니(33a)



〈그림 3〉 1행에 2 줄로 언해한 방식의 예



〈그림 4〉 1637년 사서언해의 간기

①, ②, ③은 한문의 구결을 약체 구결로 바꾸어 새긴 것이고, ④는 언해문 안에서 조사나 어미 등을 구결로 바꾸어 새긴 것이다. 언해문에서도 구결을 임의대로 섞어서 표기한 것은 지방간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권차의 표시도 달라서 제1책은 『논어언해』와 같이 卷一이지만 제2책은 卷下로 표시되어 있고 판심제도 “孟吐下”이다.

그리고 맹자언해의 제1책이나 『논어언해』에는 거의 없는 1행에 2줄로 언해한 방식이나(『맹자언해』 하권 제33장부터 35장까지) (그림 3 참조) 표제를 생략해버린 것(『맹자언해』 권14), 한행에 2개의 표제가 쓰인 것(『맹자언해』 권10과 권11)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제2책을 동일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판식, 판형의 크기, 行字數, 紙質, 새김의 변화, 글자크기 등의 형태적 특징이 거의 일치하고 무엇보다도 축약된 내용과 그 방식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는 동일한 양식을 띄지만 완전하게 통일되지 않고 특이한 판각이나 서체의 변화가 약간씩 나타나는 지방간본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존본은 경북대, 계명대, 규장각, 영남대, 장서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표 1 참조). <그림 4>는 이 책의 간행기록이 있는 부분이다.

경서자본과의 비교를 위하여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경서자본

漢文 萬:만章장이曰·왈 堯 요 | 以:이 天 天下:하 與:여 舜:순 이라 有:有 諸 저 잇가  
孟:맹 子:즈 | 曰왈 否:부 | 라 天 天子:즈 | 不 能 能:이 天 天下:하 與:여 人 人

#### 이나라

諺解文 萬:만章장이 曰오더 堯 | 天 天下:하로써 舜 舜을 與 여하 사 다 有니인  
는·니잇·가  
孟:맹 子:즈 | 曰오 사·디 아·니라 天 天子:즈 | 能·히 天 天下:하로써 人 人을 與  
여티 勿·호·느니 라

#### 1637 년본

漢文 章 堯 舜 諸 此 可 子 否 人 人 人 人 (6b)  
諺解文 萬章 堯 曰오더 堯 天下로써 舜 을 與 하사 다 有니 인는니잇가  
孟子 曰오 사·디 아니라 天子 能히 天下로써 人을 與여티 勿호느니라

#### 3.3.3 『中庸諺解』, 『大學諺解』

영남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중용언해』와 『대학언해』는 1책으로 합쳐져 있다. 표지서명은 ‘庸學解’이며 『중용언해』 16장, 『대학언해』 10 장인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中庸諺解』가 보통 61장의 1冊이고 『大學諺解』가 32장의 1冊인 것을 생각하면, 약 3분의 1 정도의 분량으로 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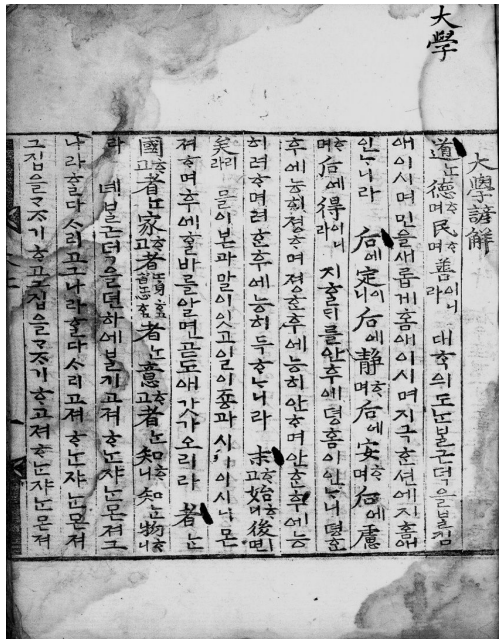
판심제는 각각 ‘中吐’와 ‘大吐’이고 장차를 표시한 것 이외에 특별한 기록은 보이

지 않는다.

『논어언해』 『맹자언해』와 같은 방식으로 동일한 본문을 한문과 언해문으로 나눈 후, 언해부분은 모두 싣고 있고 한문부분은 각 구절의 끝 글자만 취하였다.

한문부에 모두 한글의 토를 사용하였으며 한자의 약체구절이나 한문구절은 보이지 않는다.

<그림 5>는 『大學諺解』의 첫장이고, <그림 6>은 『中庸諺解』의 첫장이다.



<그림 5> 『大學諺解』의 첫장

경서자본과의 비교를 위하여 『大學諺解』의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서자본

漢文 所:소謂·위修身신이 在:지正:정其기心심者·자는身신有:유所:소忿:분懣:타則:즉

不·불·得·득·其·기·正·정·호·고·有·유·所·소·恐·공·懼·구·則·즉·不·불·得·득·其·기·正·정·호·고·有·유·所·소·好·호·樂·요·則·즉·不·불·得·득·其·기·正·정·호·고·有·유·所·소·憂·우·患·환·則·즉·不·불·得·득·其·기·正·정·이·니·라

諺解文 날·은·빛·몸·을 닷·금·이 그 믿음·을 正·정·함·에·잇·다·함·은 믿음·에 忿·분·분·타·  
 ㅎ·논·바·를·두·면 그 正·정·을 得·득·디·: 勿·호·고 恐·공·懼·구· ㅎ·논·바·를·두·면  
 그 正·정·을 得·득·디·: 勿·호·고 好·호·樂·요· ㅎ·논·바·를·두·면 그 正·정·을 得·득·디·: 勿·  
 ㅎ·고 憂·우·患·환· ㅎ·논·바·를·두·면 그 正·정·을 得·득·디·: 勿·호·느·니·라

## 1637 년본

漢文 身이者는 正하고 正하고 正하고 正이니라

諺解文    날온바뵈믈닷금이크믈을정홈에잇다홈은    밋몐애분티흐논바를두면    그정을득  
                  디믈흐고    공구흐논바를두면    그정을득디믈흐고    호요흐논바를두면    그정을득디  
                  믈흐고    우환흐논바를두면    그정을득디믈흐고니라

## 1637 년본

漢文 道는 德<sup>덕</sup>히 民<sup>민</sup>을 善<sup>선</sup>히 하니라

후에定이니후에靜히며후에安히며후에慮히며후에得이니라

末호 고始호 니後 | 면矣리라

者는國호고者는家호고者는身호고者는心호고者는意호고者는知호니知는物호  
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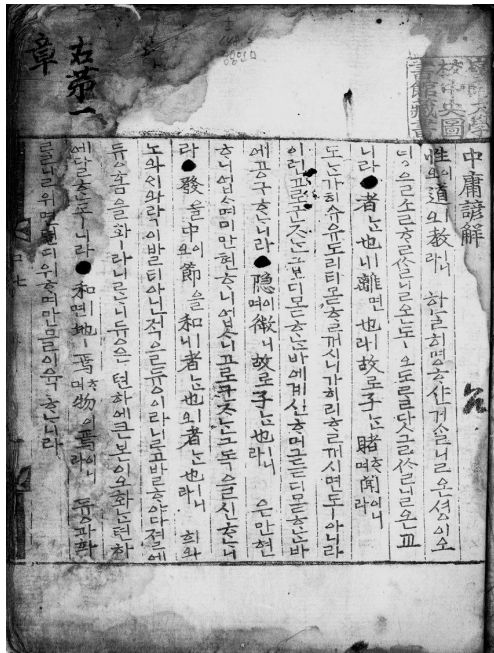
大學의도는 불근덕을 불킴에이시며 민을 새롭게 함에이시며 지극한 선에서 함애인  
느니라

지힐디를인후에덩흠이인느 니덩한후에능히정흠정흠후에능히안흠며 안후후  
에능히려흠며려후후에능히득 흠느니라

물이 본과 말이 잇고 일이 종과 시 | 이 시니 문저 허며 후에 흘 바를 알면 곧 도에 갖가요  
리라

네글근덕을던하에블키고저하는자는문져그나라홀다스리고그나라홀다스리고  
저하는자는문져그집을7즈기호고그집을7즈기호고저하는자는문져그몸을닷  
고그몸을닷고저하는자는문져그막음을정호고그막음을정호고저하는자는문져  
그의를성호고그의를성호고저하는자는문져그디를티호니디를티호은물을격홉  
애인느니라

한문부의 토는 1행에 2줄로 표시하였고 간혹 위의 “...者는身 亨고 者는心 亨고...”와 같이(그림 5 참조) 본문을 2줄로 쓴 경우도 있다. 이는 본문내용을 빠뜨렸을 때 전체 판을 새로 새기는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또한 각 문장의 주어와 각 구절의 끝 글자만 취한다는 원칙을 지킨 것으로 아무렇게나 줄여서 간행한 것이 아니라 한문부 축약의 방식이 미리 정해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6〉『中庸諺解』의 첫 장

경서자본과의 비교를 위하여 『中庸諺解』의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경서자본

漢文 天運命·명之지謂·위性·성 이오 率·솔性·성 之지謂·위道·도오 修·수道·도 之지謂·위  
教·교 | 나라

道:도也:야者:자는 不·불可:가須슈與유離:리也:야 | 니 可:가離:되면非비道:도  
也:야 | 라는시:故:고로군子:즈는戒:계愼:신乎호其기所:소不·불睹:도하며恐:공  
懼:구乎호其기所:소不·불聞문이니라

諺解文 하늘히 命:명호산 거술 닐은 性:성이오 性:성을 率:솔 쏘 닐은 道:도 | 오 道:도를 닛  
굴 쏘 닐은 教:교 | 니라

道는 可:가히 須슈與유 離:리티 勿:물호 忒:찌시니 可:가히 離:리호 忒:찌시면 道:도 | 아니라 이런 故:고  
君:군은 그 보디 勿:물호는 巴:바에 戒:계신호며 그 듣디 勿:물호는 巴:바에 恐:공懼:懼호는니라

1637 년본

漢文 性:이오道:이오教:이니라

者:는也: | 니離:면:也: | 라 故:로子:는睹:하며聞:이니라

諺解文 하늘히명호산거술닐은성이오 성을솔솔닐은도 | 오 도를닛굴 쏘 닐은교 | 니라

도는 가히 수유도 이티 勿:물호 忒:찌시니 가히 리호 忒:찌시면 도 | 아니라 이런 고  
로 군조는 그 보디 勿:물호는 巴:바에 계신호며 그 듣디 勿:물호는 巴:바에 공구 호는니라

#### 4. 結 言

이상과 같이 17세기 중엽 개인이 출판한 사서언해에 대하여 출판문화사적 의의, 현전본, 형태와 내용적 특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기존에 알려진 사서언해의 판식, 내용과는 달리 독특한 양식과 편찬의도를 보이는 이 책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인조반정 등, 정치·사회적으로 큰 변화의 시기인 1637년에 간행되었으며, 경제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판본으로서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官撰本이 아닌 개인출판물의 성격을 가지므로 기존에 알려진 坊刻本과 書肆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간행 주체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간행지역을 刻手名으로 분석해본 결과 전라도 태인 지역일 가능성이 있으며, 사찰의 승려가 각수로 참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은 사서언해 전체를 모두 싣고 있으나 한문본문을 축약하였다. 그 축약의 방

식이 내용을 요약한 것이 아니라 각 문장의 주어와 각 구절의 끝 글자만 취하고 이어지는 구절을 함께 달고 있다. 이러한 축약의 방식은 다른 판종의 사서언해나 경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는 경제적인 목적 이외에 과거시험을 대비한 수험서와 같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간행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 책을 교정청 간행의 경서자본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동일한 본문을 한문과 언해문으로 나눈 것은 비슷하지만 한문과 언해문에 쓰인 각 한자의 독음과 방점의 유무, 축약된 본문, 구절의 표시 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양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내용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는 經書 간행의 일반적 관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經書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특이한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수많은 조선시대 간본 중에서 독특한 양식을 지니는 개인출판물로서 출판문화사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 글은 조선시대 17세기 출판문화사에서 이 책의 간행이 지니는 특별한 의미를 살펴본 것에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한글어휘의 분석이나 비슷한 판형을 지니는 다른 종류의 서책발굴 등, 보다 깊이 있는 접근을 필요로 하며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간행지역과 간행주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參 考 文 獻>

- 金相溟, 『朝鮮朝 寺刹板 刻手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大學院, 1990.
- 김주원, 「임술년 영영판 <맹자언해>의 간행년대」, 『문헌과 해석』 21(2002. 겨울), p.123-135.
- 金恒洙, 「16世紀 經書諺解의 思想史的 考察」, 『奎章閣』 10 (1987) p.17-40.
- 南權熙, 「朝鮮中期부터 舊韓末까지의 口訣資料에 대한 書誌學的 研究」, 『書誌學研究』 18 (1999.12), p.464-466.

- 南權熙, 「濟州道 刊行 의 書籍 과 記錄類」 『古印刷文化』 제8집 (2001) p.219-252.
- 백두현, 「窮儒寒士本 孟子諺解에 대하여」, 『용연어문논집』 제6집 (1993. 8), p.159-174.
- 부길만, 『조선시대 방각본 출판연구』, 서울: 서울출판미디어, 2004.
- 송정숙, 「한국에서 論語의 수용과 전개」, 『書誌學研究』 20 (2000), p.359-387.
- 신양선, 『조선후기 서지사연구』, 서울: 혜안, 1996.
- 安秉禧, 「中世語의 한글資料에 대한 綜合的 考察」, 『奎章閣』 3 (1978), p.109-148.
- 安賢珠, 「朝鮮時代に 刊行된 『論語』의 板本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全南大學 校大學院, 2002.
- 柳鐸一, 『韓國文獻學研究』,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9.
- 이성무, 『한국과거제도사』, 서울: 민음사, 1997.
- 李崇寧, 「四書諺解 解題」, 『四書諺解』, 漢陽大學校 韓國學研究院, 1974.
- 李忠九, 『經書諺解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0.
- 정승혜, 「가난한 선비들의 四書諺解」, 『문헌과해석』 25 (2003. 겨울), p.199-212.
- 鄭王根, 「朝鮮時代に 刊行된 『大學』의 板本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全南大學 校大學院, 2003.
- 정형우, 『朝鮮朝 書籍文化研究』, 서울: 구미무역출판부, 1995.
- 漢陽大學校 韓國學研究院, 『大學諺解』 (影印本) 서울: 同研究院, 1974.
- 漢陽大學校 韓國學研究院, 『論語諺解』 (影印本) 서울: 同研究院, 1974.
- 漢陽大學校 韓國學研究院, 『孟子諺解』 (影印本) 서울: 同研究院, 1974.
- 漢陽大學校 韓國學研究院, 『中庸諺解』 (影印本) 서울: 同研究院, 1974.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장서각한글자료해제』, 성남: 同研究院, 2000.
- 韓榮均, 「孟子諺解 異本攷」, 『울산어문논집』 제3집(1987), p.19-30.
- 洪允杓, 「奎章閣 所藏 近世國語 文獻資料의 綜合的 研究」, 『韓國文化』 15(1994. 12) p.1-55.